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첫 번째)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사진 두 번째)을 비롯한 화쟁순례단이 만경강 길을 걸으며 화합과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을 기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송광정심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세월호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렸다.

“이땅의 아픔과 갈등 치유를 기원합니다”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땅에 아픔과 갈등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제주를 시작으로 출발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이 반환점을 앞둔 4월 18일 전북 완주 지역의 순례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48일째 순례행진을 하고 있는 순례단을 찾아 격려하고 순례길을 함께 했다.

4월 13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곁에 불식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순례를 시작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그동안 AI피해 농가 등을 찾아 위로하며 지역의 아픔을 보듬어왔다. 각 지역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현장을 찾아 대화의장을 마련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에서 순례단은 출발에 앞서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생환과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렸다.

자승 스님은 먼저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다함께 기원하자”며 “이 아픔도 순례를 통해 극복하고 화쟁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만큼은 여객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순례를 하자”고 말한 자승 스님은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이 47일째 갈등의 현장을 걷고 체험하고 있어 감사하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또 “도법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 단원들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목소리에 기가 서려있어 다행이다. 몸은 힘들지만 100일 순례를 무사히 회향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자승 스님, 화쟁순례단과 전북순례길 함께 걸어

순례단은 송광사를 참배한데 이어 송광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우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이사장 도영, 원장 우용호)을 방문해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하고 장애우들을 위로했다.

자승 스님은 특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서원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이날 방문에 특별히 신경을 쏟았다. 자승 스님은 송광정심원 어르신들을 일일이 포옹하며 “장애 인도 차별없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영 스님은 “단기간에 치료가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라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며 “이런 시설이 사회에 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접 방문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순례단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사업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방문했다. 여기서 임수경 센터장과 함께 지역경제센터의 꾸러미 사업, 완주 로컬푸드 사업,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 전북1호 완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미소식당에서 지역 농산물로만 짜여진 식사를 하며 도농공동

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화쟁코리아 순례는 원호 스님의 화쟁사상으로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평화롭게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직접 현장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은 이어 만경강 강둑을 따라 완주 비봉삼거리까지 1시간가량을 함께 걸으며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이 땅의 생명평화를 발원했다. 만경강 길 순례에 앞서 순례단원들은 진도 여객선 침몰 희생자들의 왕생을 기원하는 묵념과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의 선창으로 ‘화쟁코리아 꽃피우자’라는 구호와 화쟁순례 발원문을 다함께 낭독한 순례단은 만경강 길을 따라 봉동읍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8km의 길을 걸으며 농업이 주요 자산인 전북지역이 개발 논리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는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여 생명농업으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아가는 활동을 함께하고 그 가치를 함께 느꼈다.

이날 순례에 동행한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화쟁은 다름을 잘 이해하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내가 옳음에도 빈틈이 있고 그 틈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서로 한발 물러남으로서 오히려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본격적인 전북지역 순례길에 나선 화쟁코리아 순례단은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겨울 축산농가에 혹독한 시련을 안겨 주었던 AI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 동림저수지를 찾았다. 순례단은 저수지를 향해 생명평화 100배 정진과 명상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찾아 참배 후 동학농민 발상지 고부면 소재지를 경유해 황토현 전적지까지 11km의 거리를 걷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순례단은 15일 부안 계화도, 새만금을 거쳐 군산에 미군기지에 도착해 미군기지 대책위주민들과 화쟁토론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화제마을과 화제로 숲진 성매매여성들의 아픔이 남아있는 개북동을 방문하고 일제강점기 흔적이 남아있는 동곡사를 방문한 후 심리학자 김태형 박사와 화쟁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에는 익산으로 이동해 미륵사지와 완주 송광사 진안 용담담을 순례했으며, 18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과 만경강길 걷기, 19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국민통합문화제 및 풍남문 광장에서 동물위생제와 국민통합문화제 개최, 20일 남원 실상사와 대안학교, 사부공동체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일 제주도에서 첫발을 내딛은 화쟁순례단은 약 50일 동안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거제도 포로수용소 등 역사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과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과 진주의료원 등 사회적 갈등의 현장을 찾아 해법을 모색해 왔다.

원주=조동제 전북지사장

“모두가 행복한 시대 위해 끊임없이 걸을 것”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화쟁코리아 순례를 이끌고 있는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우리는 3·1정신으로 화쟁의 세계를 연다는 꿈을 갖고 길 yür을 걷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과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위한 흐름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화쟁이야말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 시대에야말로 다양한 의견, 문화가 상충하고 갈등하고 있다. 이것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면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쟁코리아 순례단은 우리시대의 아픈 곳을 찾아가지만 상생의 현장도 찾아가 격려하기도 한다.

스님은 이에 대해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 어렵고 힘든 곳에 이런 교훈을 전하는 것도 화쟁순례단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삶이 질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해 지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끝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에서 서로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라며 “항후 불교가 이런 사회문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목동큰절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반만년의 역사와 배달 한겨레의 혈맥을 안고 영결을 흐를 한강을 뒤로하여 시대의 민족 진운을 밝히기 위해 법운을 연 도량이다.



백운법 조사전영

회주 김효경
주지 이도업

- 대중일등 -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 ~ 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인라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부부법회: 매월 첫째(토) 오후 7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5시~10시

예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목동큰절 법안정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Tel. (02)2646-4975,
(02)2653-4888

황성 大覺正寺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Tel. (033)433-3754,
(033)433-0992